신안 영산도 석주대문 전경.

'매화의 섬' 진도 관매도 자전거 탐방.

"다도해 명품마을 관매도·영산도로 봄 나들이 오세요"

〈진도〉 〈신안〉

국립공원 서부사무소, 생태관광 프로그램

걷고 싶은 길·낙조 가든·해상투어 등 체험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소장 최종관)와 명품마을 운영위원회는 봄철 여행 성수기를 맞아 44개 유관기관과 손을 잡고 본격적인 '명품마을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

대상 섬은 진도 관매도(www.gwanmaedo.co.kr)와 신안 영산도(yeongsando.co.kr)로, ▲명품마을 당일형 ▲인근명소 협업형 ▲관광상품 연계형 등 총 6개의 다채로운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관매도는 지역주민들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키고자 자발적으로 국립공원 존치를 희망하며 지난 2010년 제1호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선정됐다.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부터 지원받아 마실길(3km), 피톤치드길, 습지관찰로 등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고 현대식·전통식 마을 공용 시범숙소 리모델링, 관매정식 등 레시피 개발을 끝내고 진도지역 최고의 관광명소로 거듭났다.

신안 흑산도 앞에 위치한 영산도는 지난 2012년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되면서 '영산 8경', '영산 10리길', 낙조 가든, 벽화길과 힐링 도서관이 조성됐다. 특히 목포에서 뱃길로 2시간 넘는 거리에 있는 있는 섬이지만 '부뚜막 정식'과 영산전망대에서 보는 홍어밭 경작지가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해 많은 탐방객이 다녀갔다.

또한 미래세대의 소원이 담긴 뱃모양 패널을 따라 걷는 명품마을 벽화투어와 지역주민 가이드의 걸쭉한 사투리와 함께하는 영산도 해상투어를 비롯해 국립공원 자연환경 해설사의 바다 숲 자연해설 프로그램에 다양한 어촌마을체험이 어우러진다.

최종관 서부사무소장은 "주민참여형 국립공원 생태관광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명품마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립공원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긍심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신안=이상선기자 sslee@

광양항 올 물동량 242만TEU 청신호

1분기 60만TEU … 전년보다 11% 증가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목표 물량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6일 여수광양 항만공사에 따르면 올 1분기 광양항 컨테이너 처리물량을 잠정 집계한 결과 59만9000TEU로 지난해 같은 기간 53만8000TEU보다 11.3%가 증가했다. 공사는 이 추세라면 올해 물동량이 지난해 228만5000TEU 보다 5.9% 늘어난 목표물량 242만TEU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경기침체로 부진했던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은 올 1분기 44만4000TEU로 전년대비 4.6%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환적 물동량은 15만5천TEU로 전년대비 36.8%나 늘었다. 전체 처리물량 중 환적물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예년 평균 15%보다 11%포인트 높은 26%를 기록했다.

이는 광양항이 수출·입 고정물량 처리 항만에서 수출입 및 환적 중심의 복합 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잠재력도 보여준 것이라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경기 호조에 따라 북미 지역이 전년동기 대비 9.5% 증가한 8만4000TEU였으며 일본은 6.1% 증가한 3만TEU를 기록했다. 중동 지역은 수출 호조에 힘입어 31.6%가 증가한 2만9000TEU였다.

그러나 중국 지역은 춘절과 제조기업의 경기둔화 등으로 1.6%가 감소한 11만7000TEU로 집계됐다.

송정익 마케팅 팀장은 "선화주 대상 밀착 마케팅과 글로벌 선사 대상 추가 선대 유치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자립항만의 기반인 300만TEU 조기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이랴~" 쟁기질하는 농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여수시 상암동 자매리 들녘에서 6일 오후 쟁기질이 한창이다. 요즘 황소를 이용해 땅을 갈아엎는 전통적인 쟁기질은 기계화에 밀려 보기 드문 풍경이 됐다. 〈여수시 제공〉

토요 그림경매 400회 돌파 … 3000점 팔았다

전남 문화예술재단

2006년 운림산방서 시작

지난 5일 진도 운림산방 토요그림경매장 앞에서 열린 400회 특별 야외 그림경매 모습. 〈전남도 제공〉

지역 작가에게는 창작의 기회를 주고, 미술 애호가에게는 아름다운 작품을 선사해주고 있는 전남 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정광덕)의 토요 그림경매가 400회를 돌파했다.

전남 문화예술재단은 6일 "진도 운림산방 일원에서 5일 열린 '400회 알리미(美) 특별 그림경매'에 미술 애호가를 비롯해 타 지역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날 야외경매에는 전남 출신 유명작가로 구성된 전남 알리미 홍보작가들의 기증작품을 비롯해 남도예술은행 소장작품 40점이 출품돼 이 가운데 26점이 낙찰됐다. 경매 현장에는 관광객을 비롯해 서울, 경기, 경남, 제주도 등 타지역에서 찾아온 미술 애호가들도 많았다. 토요 그림경매는 기량을 뛰어나지만 생활 기반이 열악한 지역 전업 미술작가들의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 남도예술은행 주요 사업이다.

지금까지 3267점의 작품을 구입해 전국의 미술애호가와 관광객에게 3000여점을 판매했다. 작품 판매 수익금은 다시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하는 데 쓰고 있다.

정광덕 사무처장은 "예향 진도에서 열악한 문화 인프라를 딛고 토요 그림경매 400회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술인 등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도민과 전국의 미술 애호가 덕분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영광에 민물장어 유통센터

35억 들여 법성면에 건립

지상 3층 전국 최대 규모

민물장어 전국 최대(전국 26%) 산지인 영광군에 전국 최대 규모의 민물장어 유통센터가 건립된다.

영광군은 영광 민물장어의 브랜드화를 위해 국비와 군비 35억원을 투자해 법성면 매립지에 민물장어 유통센터를 건립한다. 군은 유통센터 실시설계를 5월 중 완료하고 11월까지 준공후 '영광 민물장어 주식회사'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민물장어 유통센터는 법성면 매립지 부지 1739㎡에 지상 3층(연면적 1980㎡) 규모로 세워진다.

1층에는 민물장어 유통시설을 비롯해 가공시설·냉동시설·판매시설·민물장어 셀프 음식점이 들어서고, 2층에는 커피숍과 민물장어 전문음식점이, 3층에는 회의실과 종사자 휴게시설 등이 들어선다.

영광 민물장어 유통(주) 최종환대표는 "영광을 찾은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가장 맛좋은 장어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며 "서울이나 수도권의 대규모 판매장과의 직거래 유통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올해는 영광 민물장어 지리적 표시제 등록으로 영광 민물장어를 브랜드화시키고, 전문 유통센터를 건립해 민물장어의 유통·가공·소비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기준 영광군의 민물장어 양식장은 어업신고 55개소에 면적 14만1000㎡로 연간 1800t을 생산해 9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